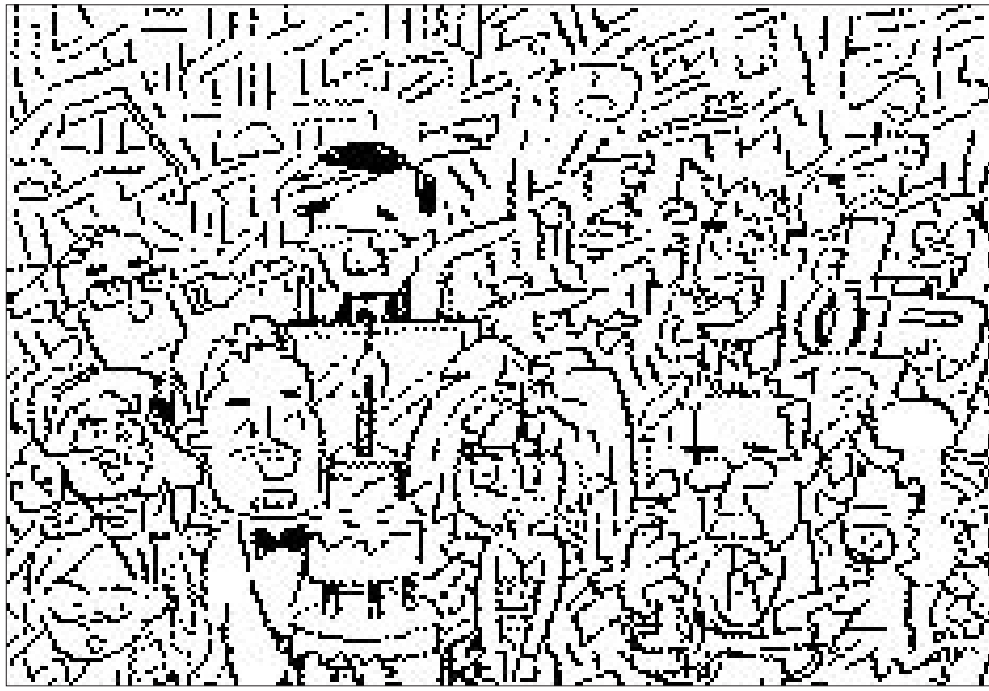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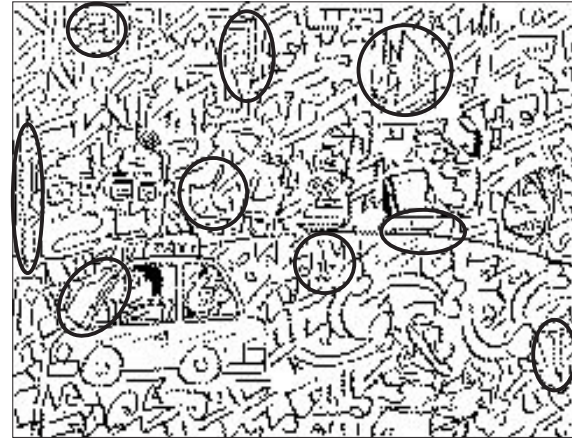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52>



찾아보세요 다리미, 셔플룩, 열쇠, 칫솔, 병아리, 아이스크림, 제비, 프라이팬, 음료

시집가는 딸에게

아버지가 큰딸을 불러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어제 회사로 민혁이가 찾아와서 너랑 결혼하고 싶더구나. 난 그 정도면 만족이지만 답사자가 좋아야. 네 생각은 어때냐?" 그 말을 들은 딸은 속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빠, 전 엄마를 남겨두고 시집가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자 아버지가 희망에 부풀 눈빛으로 하는 말. "그럼 네 엄마도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니?"



지난주 정답

바늘, 송사리, 슬리퍼, 담배 파이프, 구두, 몽당연필, 열대어, 못, 은행일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천,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성상기 <광주시 서구 쌍촌동> 김원중 <구례군 광의면 지천리>

리빙 센스

꼬막 무침



재료 : 꼬막, 실고추, 실파, 소금, 양념장 재료 : 간장 3큰술, 고춧가루 2작은 술, 다진 파 1큰술, 다진 마늘 2작은 술, 통깨, 참기름 1큰술, 후춧가루

- 1. 꼬막을 씻듯듯이 문질러 해감을 제거한다.
2. 깨끗이 씻은 꼬막을 냄비에 담고 소금을 넣은 뒤 뚜껑을 덮고 끓인다.
3. 냄비에서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끓이다가 한두 개 껍데기가 벌어지면 불을 끈다.
4. 준비된 재료로 양념장을 만든다.
5. 꼬막 한쪽 껍데기를 떼어낸 뒤, 양념장을 끼얹고 잘게 썬 실파와 실고추를 올린다.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1987년 11월 28일 北 공작원 KAL기 폭파

1987년 11월 28일 밤 승무원과 승객 115명을 태우고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AL 858기가 미얀마 안다만 해역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 도착한 이후 다시 방콕 기착을 위해 비행중이던 이 여객기는 "45분 후 방콕에 도착하겠다. 비행중 이상 없다"는 무선소를 끝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를 뒤인 30일 KAL 858의 추락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국가안전기획부는 북한 김정일이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공작원 김현희에게 친필 지령을 내려 여객기를 폭파시켰으며, 사고 발생 직후 바레인을 탈출하려던 폭파범 김승일과 김현희를 바레인 공항에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또 김승일은 체포 직후 극악이든 탄환을 삼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김현희도 음독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 18일 전에 터진 KAL기 폭파사건은 88서울 올림픽을 앞둔데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해 국내외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북한은 KAL기 폭파사건으로 '테러국'으로 지목돼 외교·경제제재를 받았다.

살인죄, 항공기폭파치사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현희는 1990년 3월27일 사형이 선고됐으나 이후 전향의사를 표명하는 등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1990년 4월 12일 석방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 특수공작원인 김현희와 김승일에 의한 폭탄 테러라고 발표했지만 이들의



1987년 12월 15일 KAL기 폭파 사건의 주범 김현희가 자살 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김포공항을 통해 압송됐다.

신원과 배후세력 등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한 폭파 사건이 12월 16일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발생했던 만큼 정치적 이용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 2006년 국정원은 17년 만에 제조사에 들어가 "KAL기 폭파는 북한 공작원인 김승일·김현희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기획조작설이나 사전 인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진실규명 위원회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의 유일한 생존자 김현희씨와 당시 안기부 간부들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와 함께 폭탄의 정확한 양과 종류 등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KAL기 폭파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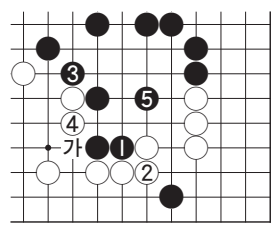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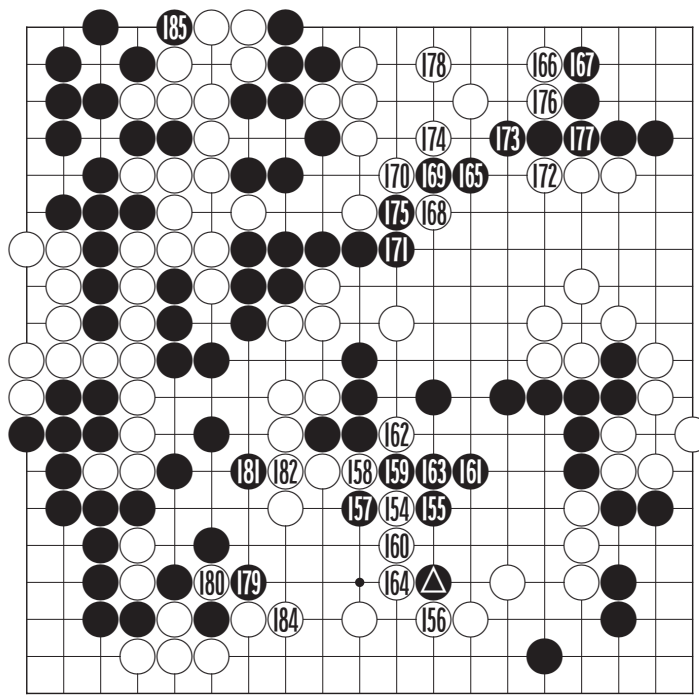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천지대패를 의식한 공방

학생부 결승전 8보(154~185)

白 이대권 (인천광역시) 黑 양승하 (경기도)



<참고도>

좌상귀의 천지대패를 놓고 서로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흑 ▲로 둔 것은 일단 중앙 흑대패를 살아놓고 보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은근히 갓감을 만드려는 생각도 있다. 흑 157은 빨리 살아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나온 손해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을 선수하고 3으로 짚힌 다음 5로 사는 것이 실전에 비해 훨씬 이득이었다. 이 그림은 다음 '가'로 나가 갓감을 만드는 맛도 남는다. 실전은 163까지 살기는 했으나 백 164로 백집이 불고 뒷맛도 없어져서 백이 편한 모습이다. 흑 165도 좌상귀의 패를 의식한 싸움이나 실속이 없는 수였다. 이 수로도 그냥 우변 '나'로 밀어가야 했다. 패를 하지않고 위협만 해도 흑이 좋아 보이는데 오히려 양승하군이 조급증을 내며 손해를 보고 있다. 드디어 참지 못하고 흑 185로 패를 들어갔으나 갓감은 어떻게 되나.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1월 26일(음 10월 29일 庚午)

- 36년생 건강과 재물이 본인과 같은 편. 48년생 구설 시비 등 사소한 일이 괴롭히니 주변을 살펴봐라. 60년생 갈바다 흉이 더 많으니 모든 일에 주의. 72년생 돈은 들어오나 손 구멍 막기가 바쁘다. 84년생 뜻은 높으나 기회가 안 보인다. 행운의 숫자: 12, 35
37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안심은 이르다. 49년생 무리한 변화가 예상되니 신중하게 처신. 61년생 보고 또 보고 주변을 살펴라. 73년생 사무실과 가정 남편과 자녀까지 모두를 살펴봐라. 85년생 소신껏 추진하면 재물과 명예에 득이 됨. 행운의 숫자: 22, 28
38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화해하며 지내라. 50년생 신사가 생기니 앞뒤를 살펴라. 62년생 안정을 취한 연후에 생각하고 행하라. 74년생 역마기가 발동하니 장거리 여행은 길하다. 행운의 숫자: 21, 44
39년생 예측 불허의 실물수가 보이지만 주의하면 비켜간다. 51년생 오늘에 끝내라 내일이면 불리하다. 63년생 요추에 신체적 불편이 나올 수 있으니 무리는 삼가라. 75년생 민사에 주의하면 길사가 있다. 행운의 숫자: 18, 19
40년생 인생의 지혜를 후배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52년생 좋은 계획에 참여한 기회가 생긴다. 64년생 직업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76년생 직장과 남편에게 변화가 온다. 행운의 숫자: 14, 43
41년생 직장에서 뒷사람에게 인정받고 아내의 사랑이 행한 만큼 있다. 53년생 처와 재물이 시달림이 있을 수 있다. 65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주의해서 결정하라. 77년생 횡재수가 보이나 복권을 구해봐라. 행운의 숫자: 24, 31
42년생 귀인을 만나서 도움을 받지만 결국은 자신이 해야 한다. 54년생 기쁨은 크고 아쉬움은 작다. 66년생 눈물 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족을 살펴봐라. 78년생 다른 사람의 불행을 살펴 면 내 불행도 사라진다. 행운의 숫자: 17, 42
43년생 뜻밖의 행재는 있으나 결과가 크지 않다. 55년생 먼저 배풀어라 그 보답은 클 것이다. 67년생 배우자 덕은 본인 스스로 만든다. 79년생 부모에게는 효도를 자식에게는 가정교육을 시키라. 행운의 숫자: 01, 41
44년생 부부간에 예의를 지키면 사랑도 지켜진다. 56년생 새 인생의 동반자가 가까이 있으니 멀리서 찾지 마라. 68년생 새로운 인생을 설계 할 이상이 보인다. 80년생 손윗사람과 돈거래는 신중만 않는다. 행운의 숫자: 02, 43
45년생 시비 도난 분실의 발생이나 큰 손실은 없다. 57년생 시작은 좋으나 쉽지는 않다. 69년생 신회통 무리하게 힘쓰면 허리가 아프다. 81년생 이웃의 도움으로 새 생활이 시작된다. 행운의 숫자: 23, 39
46년생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으니 신뢰를 지켜라. 58년생 작은 일도 꼼꼼하게 성공이 약속된다. 70년생 제일 편하고 소중한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82년생 좋은 이상의 만남이 예상된다. 행운의 숫자: 03, 27
47년생 주변을 칭찬하며 지내라. 59년생 지혜를 발휘하니 오히려 수심이 더 크다. 71년생 지혜는 제사를 순조롭게 만드니 못어 뜬게 지혜를 빌려라. 83년생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버려낸 근심이 들어온다. 행운의 숫자: 12, 30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

굿모닝 잉글리쉬 <1197>

What do you think of his attitude? 그 사람 태도는 어때?

- A : I can't decide whether or not to hire Mark.
B : Hmm, what do you think of his attitude?
A : That's the problem. He's qualified but I don't know if he can treat people with respect.
B : That's a pretty big thing for a sales rep.

- A : 마크를 채용할 지 말아야 할 지 모르겠어.
B : 음, 그 사람 태도는 어때?
A : 문제는 그거야. 그 사람은 자격이 있지만,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대할 지 믿음이 안가.
B :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지, 판매사원로서는 말이야.

- \* whether or not ~ =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 attitude : 태도
\* qualified : 자격이 있는
\* treat : (~를) 대하다
\* with respect : 존중하면서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197>

病氣(びょうき)になっちゃうよ. 병이 날 것 같아

- A : 今日も残業(さんぎょう)しろって言(い)われたら、病氣(びょうき)になっちゃうよ。
B : サウナに入(はい)って、疲(つか)れを取(と)りたいですな。
A : うん、私も。

- A : 오늘도 잔업 하라고 하면 병이 날 것 같아.
B : 사우나라도 가서 피곤을 풀고 싶어요.
A : 응, 나도.

残業(さんぎょう) : 잔업
病氣(びょうき) : 병
疲(つか)れを取(と)る : 피곤을 쫓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v ☎ 228-2545

니하오 쑹구위 <274>

很干净. 매우 깨끗하다

- A: 河水干净不干净? heshui gānjing bu gānjing
B: 很干净. hén gānjing
A: 从这里到河边远不远? cóng zhèlǐ dào hébiān yuǎn zǔ yuǎn
B: 不太远. bú tài yuǎn

- A: 깨끗은 깨끗하니까?
B: 매우 깨끗합니다.
A: 여장에서 잠까지 못니까?
B: 그대기 멀지 않습니다.

干净 [gānjing] 깨끗하다
远 [yuǎn] 멀다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

한자 이야기 <914>

曳尾塗中(에미도중)
골메, 꼬리미, 길도, 가운데 중

에미도중(曳尾塗中)은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닌다는 뜻으로, 부귀를 누리면서 구속된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비유이다. '장자(莊子)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초(楚)나라의 왕이 사자(使者)를 보내 장자에게 정치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낚시질을 하던 장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 "초나라에는 신귀(神龜)라는 3천년 묵은 죽은 거북이 등딱지를 비단으로 한 상자에 넣어 묘당(廟堂)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다고 듣고 있소. 그런데 그 거북이는 죽어서 그렇게 소중히 간직되길 바라겠소? 아니면 살아 꼬리를 진흙 속에 넣고 끌고 다니기를 바라겠소(曳尾塗中)?" 사자가 대답하길, "물론 진흙 속에 꼬리를 넣고 끌고 다니길 바라겠지요."라고 하였다. 이렇게 대신이 대답하자 장자는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소. 나 역시 진흙 속에 꼬리를 넣고 다니는 길을 택하겠소." 장자는 몇 해 부귀를 누리 후에 권력투쟁의 제물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벼슬하지 않은 평민의 몸으로 욕심 없이 살면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거절했던 것이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